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flict-Coping Types on Marital Satisfactio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 교 高賢先

교 수 池金洙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Univ.

Assistant : Hyoun Soun, Kho

Prof. : Keum Soo, Chi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conflict-coping types of marital couple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There are 5 conflict-coping types of husbands and wives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by attitudes based on partners' answers. Women's conflict-coping types are : compromisers, passives, apathetics, attackers, and blamers. Men's conflict-coping types are : reasoners, passives, juveniles, attackers, and volatiles. Each type of husband and wife affects their marital satisfaction.

All married couples are categorized again by the index of withdraw/demand. As result, there is a difference among 3 groups : resoner-husband / any type of wife, demand-husband / withdraw-wife and demand-husband / demand-wife. In other words, when a husband is resoner-husband, regardless of the type of wife, their marital satisfaction is the highest. And the demand-husband / withdraw-wife type shows a more posi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demand-husband / demand-wife type.

1. 서 론

부부관계는 현대의 일반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의 중심으로 가족전체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부부간의 주도권다툼은 이상적인 가정에서조차 주기적으로 일어난다(이정순·박성연, 1991:187). 그러나 갈등은 가족이 건강하다는 신호이고(Burr, Day & Bahr, 1989), 만약 갈등이 없다면 그 가족의 복지에 더 치명적인 것이라고 하면서(Straus, 1979) 최근에는 갈등의 기능에 대한 관점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점차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손정필, 1994:8). Bahr(1989:123)는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첫째, 갈등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둘째, 의견교환을 활발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셋째, 갈등을 통해서 가족의 규칙과 가족원의 가족내 위치가 분명하게 되며 넷째, 감정과 욕구의 표출을 통해서 가족원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갈등에 부부가 어떻게 대처했을 때 갈등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또 가족내에는 가족원에게 고정된 행동방식을 정해주는 가족규칙이 있고(Burr과 그의 동료들, 1989), 부부간 의사소통도 주제나 내용은 변하지만 일정하게 유형화된 대화방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Larsen, 1982), 이렇게 갈등시에도 이미 형성되고 고정된 대처유형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정된 갈등대처방식으로써 갈등대처유형을 살펴보고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그 갈등대처유형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갈등대처유형은 다양하게 논의하였지만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드물어서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갈등대처유형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연구는 첫째,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가족치료가인 Framo(1981)가 부부관계의 잘못된 규칙을 바꾸는 것을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목적도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을 분석하여 갈등시의 잘못된 부부간 규칙은 바꾸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여 갈등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갈등대처유형

부부관계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Bell(1975), Cuber & Haroff(1965), Fitzpatrick(1988), Margolin(1988), Olsen(1981), Gottman(1993) 등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Gottman, 1993:6). 또 Rusbult, Johnson과 Morrow(1986)도 부부가 갈등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소극적인지와 부부관계의 유지에 대해 건설적/파괴적인지를 기준으로 갈등해결전략을 표현형(Voice), 탈출형(Exit), 순종형(Loyalty), 무시형(Neglect)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Carver와 Scheier(1994)는 부부간의 적응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의 기준과 문제에 대해 접근적인지 회피적인지로 갈등시의 대처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최혜경과 노치영(1995)은 적극적/소극적, 긍정적/부정적의 2차원을 가지고 적극적-긍정적 유형, 적극적-부정적 유형, 소극적-긍정적 유형, 소극적-부정적 유형으로 분류해 문제해결행동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 부부상호작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갈등시의 부부관계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부부중 한쪽이 요구, 불평, 비난하면 상대방이 방어, 수동적으로 후퇴하는 유형이다(Christensen & Shrek, 1991:458).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갈등대처방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또 부부간에 요구/후퇴가 어떻

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갈등대처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보이는 태도에 대한 용어로 문제해결행동유형(최혜경·노치영, 1994), 문제해결전략(유은희, 1994), 갈등해결방법(김은정, 1992), 통제시도유형(이정연, 1991), 갈등관리형태(길미령, 1990) 등 여러 용어가 언급되어 왔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시의 부부태도나 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연구는 드물고, 최혜경과 노치영(1994) 등이 남편과 부인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갈등시의 유형을 연구한 바 있다.

그리하여 본연구에서는 갈등대처유형이란 갈등상황에 남편과 부인이 보이는 긍정적·부정적인 방법과 태도를 개인특성에 따라 집단분류하여 유형화한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렇게 분류된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에 요구적/후퇴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2. 관련 변수 고찰

1)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

Heavey, Layne과 Christensen(1993:16)는 남편과 부인이 요구형과 후퇴형 중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다르다고 한다. 즉 남편이 요구형이고 부인이 후퇴형인 부부는 1년뒤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되었으나, 부인이 요구형이고 남편이 후퇴형인 경우는 1년뒤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감소되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Bradbury과 Finshan(1993)에 의하면 부인이 갈등해결전략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후퇴의 정도는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영향을 받았으며,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의식의 부산물이라고 한다(Kurdek, 1995:재인용). Gottman과 Krokoff(1989)도 갈등으로부터의 회피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hr(1989)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며 갈등을 피하는 것은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갈등대처방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에의 의지 등을 들고 있고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갈등대처방법으로 부인, 전이, 약속취소,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Kurdek(1995)은 갈등대처유형을 대결형, 후퇴형, 순종형의 3가지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후퇴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편이 후퇴형일때는 부인이 나타내는 각 유형의 수준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차이가 있었고, 부인이 후퇴형인 경우는 남편과 관계없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남편보다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상담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은희(1994)는 문제해결유형을 협동적인 전략, 갈등회피전략, 경쟁하는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담부부들은 회피나 경쟁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이런 갈등대처방법이 결혼만족도에 바람직하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2)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와 성차

갈등시 부부간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원인에 대해서 Christensen(1988)과 Jacobson(1989)는 남편과 부인은 친밀성을 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고 갈등시 요구적이며, 남성은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하고 갈등시 후퇴적이다(Christensen & Shrenk, 1991:459 재인용). 그 후 Heavey과 그의 동료(1993:25)는 부인이 더 요구적이고 남편이 더 후퇴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Baucum, Notarius, Burnett&Haefner, 1990 ; Christensen, 1987 ; Gottman & Krokoff, 1989)을 재입증하였고, 이런 현상은 거대한 사회구조의 특성이라며 성차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먼저 갈등대처유형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Rusbult와 그의 동료들(1986)은 문제해결유형에 있어서

부인이 남편보다 표현형, 순종형이 많았고, 남편이 부인보다 무시형이 더 많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 갈등시에 나타나는 부부의 태도차이를 살펴보면, 상담사례로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을 연구한 이미영(1994:73)은 남편이 부인보다 해결방안모색을 많이 하고 부인이 남편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한편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도 성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Gottman과 그의 동료(1989)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은 낮은 갈등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시키나 부인은 높은 갈등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불만족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다. 또 Heavey와 그의 동료들(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부인이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또 Kurdek(1995:161)도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집단에서 부인은 대결형을 남편은 후퇴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에서의 성차에 관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는데 국내에서의 성차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하여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서울근교와 전주 및 전주근교에 거주하는 자녀 1인이상의 부부로 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신혼기를 제외한 이유는 부부의 관계 형태가 어느정도 형성 및 고정될 수 있는 결혼기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부부 20쌍(40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여 척도를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6월 11일에서 7월 2일사이에 서울 및 서울근교에 200쌍(400명), 전주 및 전주근교에 200쌍(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331

쌍(662명)이 회수되었고, 부실기제된 것을 제외한 232쌍(464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척도의 구성

1) 갈등대처유형

최혜경과 노치영(1994)이 대처·의사소통·갈등해결행동에 관한 기존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행동척도를 수정 보완하고 언어유형을 첨가하여 작성하였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위하여 부부가 배우자의 유형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질문유형은 5점리커형으로 언어유형 25문항, 행동유형 25문항이며, 남편과 부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차이를 주었고, 요인분석결과 남편용은 9문항이, 부인용은 5문항이 제거된 후 최종분석이 이루어졌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α 는 남편용과 부인용 모두 0.87이었다.

2) 결혼만족도

양은순(1955)의 사랑과 순종테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총 20문항이며 5점리커트 형태로 최하 2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0.90이었다.

3. 자료분석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항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각 분석마다 빈도와 평균,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였고, 부부의 결혼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하였다. 또 갈등대처유형과 배경변수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NOVA와 Dunacn value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수가 갈등대처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

1) 남편과 부인¹⁾의 갈등대처유형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은 부부가 배우자의 갈등시 태도를 기입하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으로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태도를 비난적태도, 공격적태도, 이성적태도, 회피적태도, 양보적태도, 무관심한 태도의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명명

하였고,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태도는 비난적태도, 이성적태도, 폭력적태도, 회피적태도, 위협적태도, 유아적태도, 비판적태도의 7가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1)²⁾

계속하여, 요인분석결과를 가지고 개인특성별 집단구분을 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갈등대처유형은 남편과 부인 각각 5가지로 분류되었는데,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유형은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으로,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유형은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

〈표 1〉 갈등대처유형 요인과 그 태도내용

갈등대처유형요인		갈등시의 태도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태도	비난적 태도	사사건건따짐,비난,주변인언급,화냄/소리지름,불평,자기주장,잔소리,말끊기 악담/욕,변명,남편의무확인,이혼제의,죽어버린다그함,주위에하소연,매리려워
	공격적 태도	물건던짐,술/담배,밀치기/움켜잡고흔들기,꼬집기/할림,늦게들어옴,물건부숨 아이때립,집나감
	이성적 태도	책임질말만함,협상/타협,잘못시인,이해노력,격려/칭찬,해결책제안
	회피적 태도	말안함,식사안함,잠자리피함,차갑게대함
	양보적 태도	구슬르기,환심사려노력(선물/용돈),편지/전화
	무관심한 태도	아이통해뜻전달,문제에상관안함,다른일에몰두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태도	비난적 태도	사사건건따짐,비난,잘못지적,잔소리,화내기/소리지름,짜증,부인의무확인 불평,말끊기,멋대로문제처리,이혼제의,변명,주변인언급
	이성적 태도	구슬르기,격려/칭찬,협상/타협,이해노력,편지/전화,잘못시인,환심사려노력 양보,해결책제안
	폭력적 태도	매리려함,밀치기/움켜잡고흔들,발로차기/매리기,악담/욕,물건부숨
	회피적 태도	차갑게대함,다른일몰두,말안함,식사안함,잠자리피함,늦게들어옴, 문제상관안함
	위협적 태도	아이때립,아이통해뜻전달,물건던짐,흥기로위협,발구르기/문썩담음
	유아적 태도	다른사람에게하소연,집에안들어옴,감정표현이솔직하지못함
	비판적 태도	울기,죽어버린다고함

1) 남편과 부인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남편과 부인으로, 한쌍으로 보았을 때는 부부로 명명하였다.

2) 요인분석과정 : 최초의 요인분석에서 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수가 많아 한문항으로 묶이는 것은 제외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한요인에 2문항이상이 되었을때부터 요인수를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요인의 수를 10개에서 4개까지 지정하여 결과를 출력한 후 연구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의 수로 결정하였다. 부인의 태도는 41문항, 6개요인, 남편의 태도는 45문항, 7개요인이다.

〈표 2〉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별 요인점수*

(N=205)

갈등대처유형	N (%)	요 인					
		비난적태도	공격적태도	이성적태도	회피적태도	양보적태도	무관심한태도
양 보 형	28(13.7)	-0.34	-0.14	0.51	0.38	1.52	-0.17
소극적형	93(45.5)	-0.19	-0.26	-0.03	-0.47	-0.22	-0.45
외 면 형	48(23.4)	-0.19	-0.39	0.08	0.56	-0.35	0.84
공 격 형	19(9.3)	-0.20	2.46	-0.25	0.13	-0.21	0.55
비 난 형	17(8.3)	2.33	-0.02	-0.63	0.20	-0.04	-0.24

* 빈도수가 다른 것은 missing value 때문이다.

〈표 3〉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별 요인점수

(N=200)

갈등대처유형	N (%)	요 인						
		비난적태도	이성적태도	폭력적태도	회피적태도	위협적태도	유아적태도	비관적태도
이 성 형	64(32.0)	-0.17	0.88	-0.05	-0.38	-0.24	-0.15	-0.17
소극적형	60(30.0)	-0.43	-0.60	-0.11	-0.34	0.21	-0.29	0.19
유 아 형	49(24.5)	0.31	-0.25	-0.50	0.70	-0.18	0.60	-0.39
공 격 형	15(7.5)	0.81	-0.65	1.69	0.34	0.86	-0.62	-0.95
변 덕 형	12(6.0)	0.79	0.16	0.79	0.48	-0.15	0.58	2.71

격형, 변덕형으로 명명하였다.(표 2, 표 3)³⁾

이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편들은 부인이 갈등시에 소극적이거나 외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고(68.8%),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17.6%)는 적어서 부부갈등시에 부인들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부인이 더 요구적이라고 한 선행연구(Heavy와 그의 동료들,1993)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한국문화가 부부관계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순종적이 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인들은 남편이 갈등시에 이성적으로 대처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어느정도의 갈등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였는지와 응답의 솔직성여부가 제한점으로 남게된다. 한편 남편들이 공

격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유아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인과 남편은 모두 갈등시에 소극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최혜경과 노치영(1994:271)이 우리나라의 부부는 적극적, 부정적인 문제해결경향을 보인다고 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갈등대처유형에서 약간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갈등시에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대처유형이 부인의 경우는 양보형이고 남편은 이성형이었는데, 남편과 부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비난형이 부인에게서만 나타나서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시에 더 언어적으로 대처한다고 보였으며, 남편중에서 일종의 자학적 공격형이라고 할 수

3) 군집분석과정 : 최초의 군집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군집의 수를 지정하여 통계분석을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남편과 부인 각각 연구내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있는 변덕형이 나타났다.

2) 부부의 결혼만족도

〈표 4〉 부부의 결혼만족도

집 단	빈 도	평 균	paired-t test 평 균	표준편차	t
남 편	232	72.47	4.86	0.88	5.55***
부 인	232	67.61			

*** p<0.001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남편의 평균점수는 65.6이고 부인의 평균점수는 59.5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 부부간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표 5〉에서와 같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갈등대처유형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다. 먼저,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양보형인 경우가 외면형일때보다, 또 외면형일때가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인 경우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

둘째,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차이를 나타내 양보형인 경우에 자신 스스로도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비난형일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부인이 요구적인 경우에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Heavey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남편이 갈등시 이성형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에 스스로도 결

〈표 5〉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 수			결 혼 만 족 도					
갈 등 대 처 유 형		N (%)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평 균	F	D	평 균	F	D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유형	양 보 형	28 (13.7)	78.79		A	73.93		A
	소극적형	93 (45.5)	74.51	7.58***	AB	69.61	4.19**	AB
	외 면 형	48 (23.4)	71.77		B	65.96		BC
	공 격 형	19 (9.3)	63.37		C	63.74		BC
	비 난 형	17 (8.3)	63.94		C	60.71		C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유형	이 성 형	64 (32.0)	78.27		A	74.53		A
	소극적형	60 (30.0)	72.32		AB	67.70		B
	유 아 형	49 (24.5)	68.86	6.95***	BC	65.59	8.94***	B
	공 격 형	15 (7.5)	69.20		BC	63.33		B
	변 덕 형	12 (6.0)	62.42		C	56.00		C

** p<.01 *** p<.001 D:Duncan Value

혼만족도가 높았고 변덕형일때 결혼만족도가 낮았는데, 역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있을때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이성형일 때와 소극적형·유아형·공격형일 때, 그리고 변덕형일 때의 3경우간에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어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이성형인 경우에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남편이 변덕형일때 부인은 가장 불만족하였다.

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갈등대처유형은 또 남편과 부인 각각의 결혼만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부관계는 상호작용이기때문에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유형은 인과관계모형보다는 상호작용모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즉 남편과 부인중 어느쪽이 더 중요하게 영향미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영향미치는 유형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Christensen과 그의 동료들(1991:458)에 의하면 갈등시에 배우자 일방이 요구형이면 다른 한쪽은 후퇴형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부인의 양보형·소극적형·외면형과 남편의 소극적형·유아형을 후퇴형으로 보고, 부인의 공격형·비난형, 남편의 공격형·변덕형을 요구형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한쌍의 부부에게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남편과 부인이 모두 후퇴형인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후퇴형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을 근거로 쌍으로서의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어떻게 연합되어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남편이 이성형일때 부인의 유형과 관련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인후퇴형/남편요구형인 부부집단과 부인과 남편 모두 요구형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Heagy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는 갈등시 부인이 요구형인 것보다 남편이 요구형인 경우가 결혼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 부인요구형/남편후퇴형과 부인후퇴형/남편요구형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이성형인 경우를 제외하면 남편이 후퇴형인지 요구형인지보다는 부인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Kurdek(1995)가 부인의 유형이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편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연구와 상통하는 결과이다.

4. 배경변수에 따른 갈등대처유형과 결혼만족도

배경변수로는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배경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으로 산출하였는데(표 8), 남편의 경우에는 연령만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부인의 경우에는 연령과 학력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56세이상의 남편과 부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국졸이하의 부인이 다른 학력의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배경변수와 갈등대처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는데(표 9), 부인의 학력만이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에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다.

〈표 6〉 부부간 갈등대처유형의 연합 관계

(N=176쌍)

갈등대처유형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합계
		이성형	후퇴형	요구형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	후퇴형	46(26.1)	85(48.3)	18(10.2)	149 (84.7)
	요구형	6(3.4)	14(8.0)	7(4.0)	27 (15.3)
합계		52(29.5)	99(56.3)	25(14.2)	176(100.0)

〈표 7〉 부부간 갈등대처유형의 연합에 따른 결혼만족도

배우자가 인지한 갈등대처유형				결혼만족도		
부인유형	*	남편유형	N(쌍)	평균 (남편+부인)/2	F	D
후퇴형	*	이성형	46	76.5	8.95****	A
요구형	*	이성형	6	76.0		A
후퇴형	*	후퇴형	85	70.5		AB
후퇴형	*	요구형	18	65.9		B
요구형	*	후퇴형	14	62.9		BC
요구형	*	요구형	7	56.1		C

**** p<.0001 D:Duncan Value

V. 결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남편과 부인의 대처유형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1인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을 분석하고, 이 갈등대처유형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갈등대처유형이 부부간에 어떤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부를 단위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은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이었으며,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은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이었다. 이 중 부인은 소극적형, 외면형에 68.9%가 포함되었으며, 남편은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에 86.5%가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각 갈등대처유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중 양보형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 모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반면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비난형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중에서는 이성형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변덕형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세째,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은 부부중 일방이 요구적이면 다른 일방은 후퇴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을 후퇴형/요구형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즉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중 양보형·소극적형·외면형을 후퇴형으로, 공격형·비난형을 요구형으로,

〈표 8〉 배경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배경변수	결혼만족도								
	남편				부인				
	N(%)	평균	F	D	N(%)	평균	F	D	
거주지	서울	73(31.5)	72.1	1.17		70(30.2)	65.0	1.93	
	서울근교	45(19.4)	72.7			48(20.7)	67.7		
	전주	83(35.8)	74.0			86(37.1)	70.0		
	전주근교	31(13.4)	69.0			28(12.1)	65.1		
연령	35 이하	58(25.0)	74.4	4.29**	A A A B	93(40.1)	71.6	7.13***	A A A B
	36 - 45	87(37.5)	73.6			79(34.1)	66.0		
	46 - 55	66(28.4)	72.0			52(22.4)	64.8		
	56 이상	21(9.1)	63.7			8(3.4)	55.3		
학력	국졸및중퇴	6(2.6)	72.3	2.00		8(3.4)	54.5	5.34***	B A A A A
	중졸및중퇴	10(4.3)	64.4			25(10.8)	64.8		
	고졸및중퇴	55(23.8)	70.1			82(35.3)	65.2		
	대졸및중퇴	101(43.7)	73.9			106(45.7)	70.5		
	대학원이상	59(25.5)	73.7			11(4.7)	73.5		
직업	무직	4(1.7)	62.3	2.18	70(30.0)	162(70.0)	66.7	2.62	
	숙련공 외	7(3.0)	65.9			70(30.0)	69.7		
	서비스직외	18(7.8)	71.3						
	자영상공업	40(17.4)	69.5						
	사무직	112(48.7)	73.8						
	전문직	49(21.3)	73.8						
월수입	100 이하	42(18.4)	71.7	1.34		46(20.1)	66.5	0.57	
	- 200	125(54.8)	71.4			126(55.0)	67.1		
	- 300	43(18.9)	76.2			39(17.0)	68.7		
	- 400	11(4.8)	75.2			10(4.4)	73.0		
	400 이상	7(3.1)	72.7			8(3.5)	69.5		

** p<0.01 *** p<0.001 D:Duncan Value

부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중 이성형은 그대로 이성형으로, 소극적형·유아형은 후퇴형으로, 공격형·번덕형은 요구형으로 명명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의 연합을 전체 6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인의 유형과 관련없이 남편이 이성형인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인후퇴형/남편요구형,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부부 모두 요구형인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

장 낮았다.

네째, 성별과 배경변인이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유형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다. 즉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갈등대처유형에서도 성별차이가 있었으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볼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남

〈표 9〉 배경변수에 따른 갈등대처유형

남편의 배경변수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					χ ²	N(%)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		
거주지	서울	10(4.9)	26(12.7)	18(8.8)	6(2.9)	3(1.5)	11.3	
	서울근교	4(2.0)	18(8.8)	8(3.9)	3(1.5)	6(2.9)		
	전주	13(6.3)	37(18.1)	14(6.8)	7(3.4)	4(2.0)		
	전주근교	1(0.5)	12(5.9)	8(3.9)	3(1.5)	4(2.0)		
연령	35 이하	13(6.3)	22(10.7)	8(3.9)	6(2.9)	5(2.4)	13.1	
	36 - 45	9(4.4)	33(16.1)	22(10.3)	8(3.9)	6(2.9)		
	46 - 55	5(2.4)	31(15.1)	12(5.9)	3(1.5)	4(2.0)		
	56 이상	1(0.5)	7(3.4)	6(2.9)	2(1.0)	2(1.0)		
학력	국졸및중퇴	0(0.0)	3(1.5)	0(0.0)	0(0.0)	1(0.5)	16.6	
	중졸및중퇴	0(0.0)	4(2.0)	1(0.5)	2(1.0)	1(0.5)		
	고졸및중퇴	6(3.5)	18(8.8)	11(5.4)	6(2.9)	7(3.4)		
	대졸및중퇴	14(6.9)	40(19.6)	22(10.8)	9(4.4)	5(2.5)		
	대학원이상	8(3.9)	28(13.7)	14(6.9)	2(1.0)	2(1.0)		
직업	무직	0(0.0)	2(1.0)	0(0.0)	0(0.0)	1(0.5)	27.9	
	숙련공외	0(0.0)	1(0.5)	4(2.0)	1(0.5)	0(0.0)		
	서비스직외	2(1.0)	7(3.5)	2(1.0)	2(1.0)	2(1.0)		
	차영상공업	2(1.0)	14(6.9)	6(3.0)	7(3.5)	5(2.5)		
	사무직	18(8.9)	47(23.2)	26(12.8)	9(4.4)	5(2.5)		
	전문직	6(3.0)	20(9.9)	10(4.9)	0(0.0)	4(2.0)		
가정월수입	100 이하	6(3.0)	16(7.9)	2(1.0)	6(3.0)	3(1.5)	23.6	
	- 200	12(5.9)	55(27.2)	28(13.9)	10(5.0)	11(5.5)		
	- 300	8(4.0)	15(7.4)	9(4.5)	3(1.5)	2(1.0)		
	- 400	2(1.0)	5(2.5)	4(2.0)	0(0.0)	0(0.0)		
	400 이상	0(0.0)	1(0.5)	4(2.0)	0(0.0)	0(0.0)		
부인의 배경변수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χ ²	N(%)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		
거주지	서울	20(10.0)	17(8.5)	19(9.5)	6(3.0)	2(1.0)	10.3	
	서울근교	18(9.0)	12(6.0)	12(6.0)	1(0.5)	3(1.5)		
	전주	19(9.5)	24(12.0)	15(7.5)	7(3.5)	4(2.0)		
	전주근교	7(3.5)	7(3.5)	3(1.5)	1(0.5)	3(1.5)		
연령	35 이하	35(17.5)	20(10.0)	20(10.0)	8(4.0)	3(1.5)	11.8	
	36 - 45	18(9.0)	19(9.5)	16(8.0)	4(2.0)	5(2.5)		
	46 - 55	10(5.0)	19(9.5)	11(5.5)	2(1.0)	4(2.0)		
	56 이상	1(0.5)	2(1.0)	2(1.0)	1(0.5)	0(0.0)		
학력	국졸및중퇴	0(0.0)	2(1.0)	0(0.0)	0(0.0)	3(1.5)	50.0****	
	중졸및중퇴	4(2.0)	8(4.0)	4(2.0)	1(0.5)	2(1.0)		
	고졸및중퇴	13(6.5)	28(14.0)	15(7.5)	6(3.0)	5(2.5)		
	대졸및중퇴	43(21.5)	20(10.0)	26(13.0)	8(4.0)	2(1.0)		
	대학원이상	4(2.0)	2(1.0)	4(2.0)	0(0.0)	0(0.0)		
직업	주부	42(21.0)	44(22.0)	33(16.5)	11(5.5)	8(4.0)	1.1	
	취업주부	22(11.0)	16(8.0)	16(8.0)	4(2.0)	4(2.0)		
가정월수입	100 이하	8(4.0)	10(5.1)	8(4.0)	5(2.5)	4(2.0)	21.55	
	- 200	35(17.7)	40(20.2)	27(13.6)	6(3.0)	5(2.5)		
	- 300	15(7.6)	5(2.5)	9(4.6)	3(1.5)	3(1.5)		
	- 400	4(2.0)	2(1.0)	2(1.0)	0(0.0)	0(0.0)		
	400 이상	2(1.0)	1(0.5)	3(1.5)	1(0.5)	0(0.0)		

**** p<0.0001

편의 연령과 부인의 연령, 부인의 학력이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고, 부인의 학력만이 갈등대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갈등시에 부부가 대처하는 양식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다양하며 이 갈등대처유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남편과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은 부부간에 다양하게 연합되어 있었고 연합유형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갈등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성형의 남편은 후퇴형의 부인과 대부분 연합되어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후퇴형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남편이 갈등시에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부인이 소극적으로 후퇴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런 관계가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남편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갈등시에 또다시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부부관계에 긍정적 순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 남편과 부인이 갈등시 모두 후퇴형인 부부는 부부간에 큰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인의 긍정적인 유형인 양보형이 후퇴형에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의 한 쪽이 요구형이면 다른 쪽이 후퇴하는 양상은 부부간에 보완이 되어서 부부모두 요구형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낮은 결혼만족도는 또다시 갈등시에 요구형의 배우자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는 결혼만족도에 영향미치는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을 부부간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이나 갈등대처유형을 측정하는 방법면에서 질적차원의 접근이나 종단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길미령(1990).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대 석사학위논문.
- 3) 손정필(1994). 대안간 갈등해결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4) 양은순(1995).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도서출판HOME.
- 5) 유은희(1994). "상당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 1권(통권1호)
- 6) 이미영(1994).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 및 대응행동분석-전화상담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7) 이정순·박성연(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8) 이정연(1991). 한국도시남편이 지각한 부부권력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67-284.
- 9) 최혜경·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4.
- 10) Bahr, S.J.(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11) Burr, W.R. & Day, R.D. & Bahr, K.S.(1989). Family science (preliminary edition). Published by Alexander.
- 12) Carver, C.S. & Scheier, M.F.(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 13) Christensen, A. & Shenk, J.L.(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

- 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3), 458-463.
- 14) Framo, J.L.(1981). The interaction of marital therapy with sessions with family of origin. In A. S.Gur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226-267.
- 15) Gottman, J.M.(1993). The role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6), 6-15.
- 16) Gottman, J.M. & Krokoff, L.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17) Heavey, C.L. &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18) Kurdek, L.K.(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19) Larsen, J.A.(1982). Remending dysfunctional marital communication. Social Casework 63(1).
- 20) Rusbult, C.E. & Johnson, D.J. & Morrow, G.D. (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44-753.
- 21)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1), 75-88.